

성매매 공간→생활실험실 변신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여행길 선미촌 리빙랩 사업 공모 빈 업소 활용 창업 등 10개 팀 지원... 18~21일 이메일·방문 접수

과거 성매매로 쓰였던 공간이 시민들의 생활실험실로 변신한다.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성평등전주)는 여행길(여성이 행복한 길) 조성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의 빈 업소를 활용한 2억 원 규모의 선미촌 리빙랩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리빙랩(Living-Lab)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일상 속의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자 시도하는 현장중심의 생활실험실을 의미한다.

성평등전주는 올해 '여행길 조성'을

위한 선미촌 리빙랩' 사업을 통해 창업·팝업스토어·문화 창작(체험) 활동을 실험할 창의적이고 사회적 연대에 관심 있는 조직(팀) 10개 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주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2인 이상 조직(팀) 중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비영리단체 △여성 인권과 성 평등 활동 조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목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조직(팀)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8일부터 21일까지고, 신청서는 이메일(lv.jequty@gmail.com)로

접수하거나 성평등전주(완산구 물왕동3길 7)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성평등전주는 올해 신규참여팀과 지속참여팀(2021년 선미촌리빙랩 참여팀 중 선정)으로 나누어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참여팀은 1팀당 약 2600만원, 지속참여팀은 1팀당 약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도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장은 "여성 인권 침해 공간이었던 성매매 집결지가 시민주도의 선미촌리빙랩 사업을 통해 여성인권과 문화, 생태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저소득층 청년·다문화 가정에 일자리 제공

전주시, 22일까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전주시가 취업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과 다문화 가정에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은 총 26명으로, 오는 3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일자리사업인 △전주공예품전시관 활성화 사업 △

남부시장 청년물 매니저 사업, 다문화 가정지원사업인 △다문화가정 외국문화화전도사 지원사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만 18~39세로 추진)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로, 실업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조건은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간식비 등 부대비용 포함 1일 6만1200원으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주5일) 근무다.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의 경우 1일 4만1640원, 근로시간은 1일 4시간(주5일) 근무다.

김태훈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덕진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신청자 자격·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 확대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의 자격과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신고 시에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왔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 대신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여러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했다. 또한 사망자의 연고가 없는 경우,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돼 있어 상속관리인의 경우에도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덕진구의 이번 신청자격 확대 시행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상속인들의 상속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속인도 불확된 채권·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확대시행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에 근로복지공단 및 대지급금 채무와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추가돼 현행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군인·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공제회 등 14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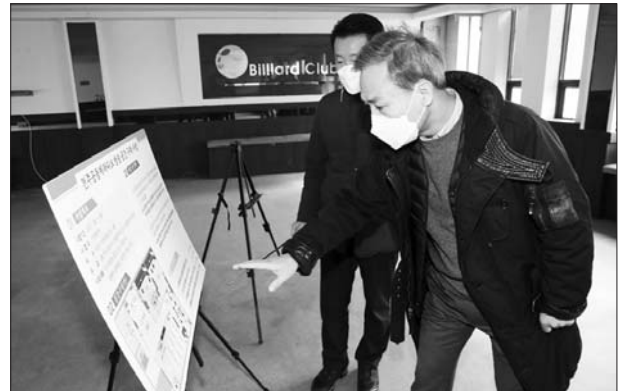
첫마중길에 '전주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생긴다

시, 연말까지 지역 소통창구 확보·공동체·주민 참여 통로 구축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시민들의 공동체정신을 일깨워줄 동네 라디오 방송국이 생긴다.

전주시는 동네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하고 지역의 현안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지역 소통창구를 확보하고 공동체와 주민을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총 1억7300만 원을 투입해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전주공동체라디오 방송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월까지 주민이 직접 만드는 동네 라디오인 '전주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할 단체를 선정한 후 공간 구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6일 전주공동체라디오 방송 공간 조성 예정 현장을 방문해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위한 사업추진 계획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전주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은 방송실과 소통공간, 등부권역의 공동체들을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교육 및 회의공간 등도 함께 배치될 예정이다. 공중체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특화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전주공동체라디오를 통해 주민이 직접 전하는 재난정보와 기상정보 프로그램을 매일 수시로 운영해 신속하게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주 1회 이상 동네 역사 프

로그래프와 지역문화 행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상대적으로 미디어에서 소외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단체들과 연계한 시민 참여프로그램을 주1회 이상 편성,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소통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전주공동

체라디오 방송 공간 조성 예정 현장을 방문해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위한 사업추진 계획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면서, "공동체 정신과 끈끈한 사회적 연대가 있는 도시는 그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림 없고 지속가능한 도시일 것"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방송을 제작하고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는 공동체 라디오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연대를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개성 담긴 특색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늘어난다

기존 획일적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개선·자율형 민간 참여 유도

나만의 개성이 담긴 독특한 디자인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늘어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3년간 건물번호판 신규 설치건수는 2019년 741건, 2020년

638건, 2021년 606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이 가운데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건수는 2019년 46건(6.2%), 2020년 44건(6.9%), 2021년 59건(9.7%)으로 증가 추세라고 16일 밝혔다.



나만의 개성이 담긴 독특한 디자인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늘어나고 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기존의 획일화된 건물번호판과 달리, 건물주가 건물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직접 디자인해 제작·설치하는 '건물주의 개성이 담긴 건물번호판'을 의미한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원하는 경우 설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물 설계 단계부터 건물번호판 디자인 등 특성을 반영해 건축·허가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제작할 수 있다.

시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기 설치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선정된 특색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관련 이미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관련 이미지를 건축사협회에 제공하거나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과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